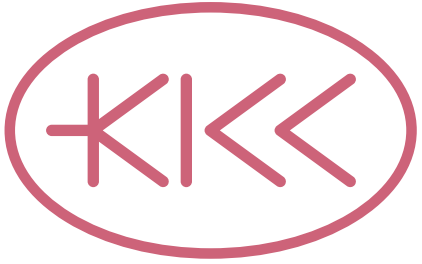
CRAFT CITY LAB COMPETITION



공예시티랩 컴페티션

2019

태도

Beyond Objects

일상의 무형적 연결들

살리 사사키

청주공예비엔날레 2019 공예도시랩
사진 저작권은 모두 사사키 살리 ©Sali Sasaki에게 있음.
도와주신 안지후씨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개
청주를 찾아서

파트 1 : 뿌리
공예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흔적 없이
공예를 계속 할 것인가?
대체와 구성
전통적, 그리고 현대적 삶

파트 2 : 교류
여성
배움
(비)가시성
수요와 공급
경계를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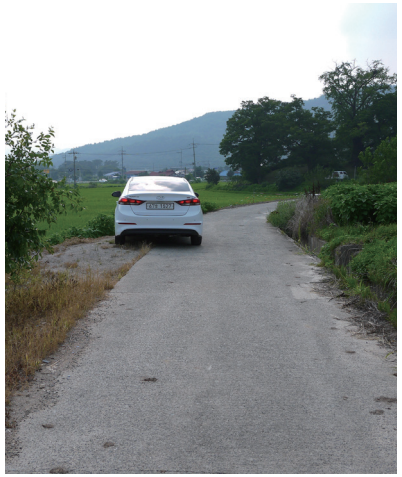
파트 3 : 회복
탈 공업화적 미래
어떤 요청
일상의 삶 속에서
공예의 데이터와 연구
열린 도시
아름다움에 대한 권리

장소 / 사람 / 물건
참고 문헌

소개

이 연구는 창의적 탐구, 시각 인류학, 문화 연구의 영역 사이에서 예술 영역이 아닌 일상 생활과 관련된 공예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술적 오브제를 넘어 공예를 둘러싼 사회적 차원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소를 시작지점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상황들, 공예의 실천들, 전통 문화의 문맥과 한국의 현대화, 세계화로의 변화와 같은 더 큰 문맥들을 연결하며 접점을 찾는다. 여기에 모인 여러 이야기는 청주와 충청북도의 공예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또한 증언을 통해 지역의 사람들과 제작자들이 살아나가는 공예 문화의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일상 생활의 영역은 수공예품의 일상적인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전문적인 상황, 오늘날 혹은 과거와 미래의 관계 속 공예와 전통 문화에 대한 문화적 표현과 인식을 분석하는데까지 이른다.

육거리 시장에 쌓인 도자기



대장장이가 쓰는 망치

김영조씨의 작업실에서 사용한 탄 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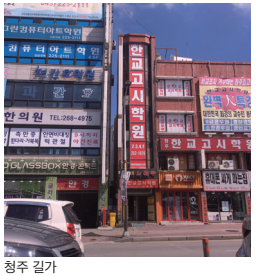
청주를 찾아서

어떤 도시를 방문하거나 처음으로 새로운 장소를 방문 할 때 맞이한 길은 도시의 더 많은 길들로 이어지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 길들이 서로 얽히고 누적됨에 따라 연결, 단절, 매끄러운 도로, 거친 도로, 끝없는 길 또는 막 다른 길이 식별되기 시작한다. 이 식별되지 않은 지리 속에서 경험은 발생한다. 경험은 다른 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새로운 도로와 경로로 무한히 확장한다. 경험과 맥락으로서의 공예 또한 매우 유사한 여정이다

2019년 7월 말, 청주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파리에서 시작한 사전연구에서 연구 일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서울을 거점으로 하는 한 젊은 한국 조수의 도움으로, 공예와 관련된 내용과 방문하는 동안 조사할 장소를 천천히 목록화했다. 한국의 공예 및 재료 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와 사회 및 역사적 정보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했다. 이 초기 단계에 이어, 현장에서의 즉흥성은 미리 형성된 서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미지의 패턴으로 뛰어 들기위한 핵심 요소였다. 오늘날 공예 생태학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는 실제 상황의 사례를 얻는 것이 필수라 생각했다. 한 사람이 다음 기회를 유기적으로 이끌어 낼 수있는 기회의 역동성을 신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친절하게 자신들의 지식, 이야기, 연락처를 공유해주었다. 물론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이 지역의 핵심 과제와 긴급히 해결해야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므로 의미가 있었다.
디지털 시대는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든다. 실제로 지역의 공예지식은 거의 없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관 및 정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온라인에 즉시 나타나지만 비공식적인 일반 사람들의 정보는 검색 엔진에 표시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너무 많이 의존함으로써 정보 계층에 의해 형성된 왜곡

구조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문화적 고정 관념도 생긴다. 웹 사이트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 공예는 더욱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의 이러한 한계와 격차의 긍정적인 측면은 주변, 그리고 “복잡한 지도와 역사로 나타나는 여백” (Clifford 1997) 에 존재하는 현장 기반의 탐구에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것이다. 이 모호한 공간 안에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공예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찾았다.
.

괴산군에서 청주시로 운전해서 가는 고속도로


청주 길가

연구 조사를 위해 공예가에게 전화하는 모습

뿌리

사람과 문화의 연결

한명철씨의 공예 작품

고령마을에서 발견한 오브제에 유약을 입히는 모습

청주의 도자기 공방

공예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열린 질문이다. 재료, 기술, 사람, 공동체, 관계, 장소, 역사 또는 이 모든 것들 사이의 연결이든, 공예가 시작된 근원은 공예의 궤도와 목적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맥락에서 전통적일 때도 있으며, 예술적이고 디자인적일 때도 있고, 정부 홍보적, 관광 기반 또는 상업적으로 주도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예 작업이나 공예 오브제는 단순히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하다. 문화에 뿌리를 둔 공예는 현 시대에서 그 영역이 미미해졌다. 과거에는 공예품이 현지 환경에서 공급된 재료로 만들어져, 지역 시장이나 행상인을 통해 현지 사람들에게 현지인이 판매했기에 매우 강력한 문화적 뿌리가 있었지만, 점점 공예품은 여러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청주 육거리 전통 시장에 도착했을 때도 이것은 눈에 띄는 현실이었다. 그곳에서 사라진 것들이 결국 진실을 드러냈다. 세대와 문화의 변화라는 진실. 그곳에 존재하는 한정된 범위의 공예품을 보며 출처나 이야기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 상점 주인이 말하길, 몇 년 전까지 한 노인이 골목 건너편 상점에서 손수 만든 농기구와 물건을 팔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전역의 공예 생산 및 지역 지식 자산의 감소 현실을 반영하며, 이는 모든 산업화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회 변화이다. 195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스미소니언 연구소 (Smithsonian Institute) 는 한국의 마을 세 곳의 물질 문화를 연구하고, 당시 존재했던 가공품의 유형, 급격한 근대화에 따른 변화, 그리고 10년마다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한국 문화의 생존 전략과 외국의 영향에 따른 창의성과 혁신의 표현을

짚었다 (Knez 1997). 당시에는 가정 용품, 가구 및 농기구를 포함한 전통적인 공예품이 여전히 현대 제품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다. 1960년대는 산업 발전의 가속화와 "국가의 생활 수준 향상에 필수적" (Clark 2000) 으로 인식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확산이 있었다.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상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 생산된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지만, 식품 저장 토기와 같은 특정한 전통적 물건은 적어도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 가정에 계속 존재했다 (Morillot 1998). 길거리 시장의 공예품의 다양성과 품질은 198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설명된다 (Kim 2015). 그러나 이것이 공예의 실천과 전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와 현대의 생활에 재적응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말한다.

육거리 시장에서 판매하는 산업용 옹기 도자기. 옹기는 발효식품에 많이 사용되며 전통적 한국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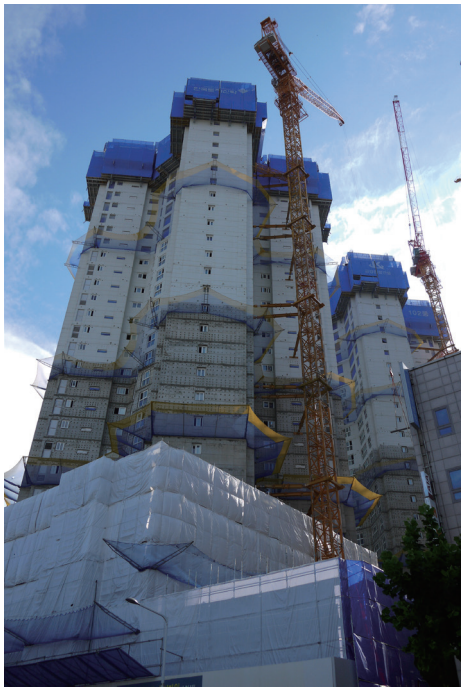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일어난 1980-90년대,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은 특히 전통 지식과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사회 생활의 변화, 농촌에서 도시 중심으로의 이주, 생산 방법과 가치 체인의 현대화는 끝이 없었다. 실제 물건의 재료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물 및 주변 환경 간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다. 가장 젊은 세대들에게 공예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요소라기보다는 과거의 상징으로만 여겨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문화와 삶의 방식의 균질화와 일치하며 사회 문화적 시스템으로서 공예가 단편화 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회, 문화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예가들은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생존 실천으로서의 공예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찾고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살아남아야했다.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도시 산업 사회는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기계를 통해 생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종류의 생산 체인에서 나오는 제품은 감정이나 기회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저 아이디어의 느낌만을 남긴다. 재료로 축소되고 분류되어진 것들은 이질성, 차이점 및 변경을 거부한다." (Lee 1997)

보은군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알 수 없는 철 냄비. 주로 아궁이가 있는 시골의 전통 부엌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흔적 없이



우리는 여러 섬유 사업 업체에 전화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웹 사이트에 주소가 있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온라인 지도는 주거 지역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모두 건설 현장이었다. 이전 건물은 새로운 주택 개발을 위해 철거되었다. 흔적 없이, 모든 주민과 가게 주인이 사라졌고 오직 우리의 상상력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호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건설 현장의 전망과 병치된 조용한 이미지.
전해지지않은 이야기.

공예를 계속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들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의 어떤 의미인가? 좋은 천이나 음식은 더 큰 범주의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문화적 유물론자들은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으려한다. (생략) 제작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인간적인 물질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Sennett 2008)

육거리 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노인들은 장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오랜 경험과 기술로 떡, 종자유, 약초, 인삼, 길거리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그들의 활동은 일상 생활 문화로 직결된다. 공예가 지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면, 지역 식량 생산은 장인 정신의 표현에 가깝다.

공예와 마찬가지로 음식과 음식 소비는 사람들이 지역과 문화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분석할 수 있는 거울이다. 그런 점에서, 육거리 시장은 여러 세대의 여성과 남성, 특히 노인을 대표한다. 그들은 한국이 대량 생산 사회가 되기 전의 삶을 경험했다.

청주시 육거리 시장의 모습

한 참기름 생산자는 60년 동안 운영해 온 자신의 가족 사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녀는 개인과 식당을 대상으로 참기름을 판매한다. "추석과 같은 특별한 휴일에는 한국 참깨를 사용하여 기름을 만드는데, 연중에는 중국산 씨앗을 사용한다" 고 말했다. 아들은 사업을 잇지 않고 다른 미래를 꿈꾼다고 한다. 따라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사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의 작은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장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우리는 증평에서 대장장이 최용진씨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젊은 세대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우려한다. 그는 현재 새로운 견습생을 훈련시키지 않고 혼자 일한다. 최근 많은 공예가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세 부터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채상장 대나무 바구니 제작자 박효숙씨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과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를 거부한다.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직업 경로를 선택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Koreana 2015) 과거에 소규모 기업과 행상인은 한국의 일상 문화의 필수 부분을 구성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현대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기대는 소규모 기업 운영자와 그들의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낳았다. (Leppanen 2007)

향후 계속될 지식 전달의 중단은 세대 간의 갈등과 문화 생활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경향은 현 세대의 변화와 세계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포스트 모던 문화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지역 지식의 감소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보존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중점은 여러 세계화 영향에 따라 지역성을 형성하는 다음 세대의 역량에 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향유와 보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상 생활 속에서, 지역적 노하우와 지속 가능성의 연속성은 궁극적으로 제조업체의 인식뿐만 아니라 기존 구조 내의 혁신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세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예 자체를 넘어선 다양하고 광범위한 틀로 전통적 관행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60년동안 일한 자신의 작업 공간을 설명하는 참기름 생산자

이 가게에서 구매한 참기름 한 병

최용진씨의 작업실을 방문. 정부에서 지정한 대장장이 전통 기능 전승자 중 한 명이다

대체와 구성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와 도전으로 많은 공예가들은 현대의 요구와 규범에 적응해 왔다. 현 세대의 변화는 젊은 세대의 장인들이 전통적인 관행보다는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더 가깝게 작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로는 디자이너들도 공예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장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 기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도예가들은 특히 예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경우에 따라 '디자이너 + 장인' 듀오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으며, 창의적인 발표와 경계를 넘나드는 노출을 통해 작품을 판매 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든다.

이러한 대체는 놀랍게도 영화와 TV제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장장이가 제작한 농민용 금속 도구는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되며, 단검, 칼 및 기타 무기가 가장 일반적이다. 최용진씨에 따르면 세계적인 '한류' 현상이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문도 열었다고 한다. 그는 한국 전통 공예품을 좋아하는 서양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전통 공예와 대중 문화 사이의 이러한 유형의 관계는 비판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미디어와 정보 기술을 통해 살아남고 유지되는 것은 이 시대 현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엘리트들 사이에서 한옥 생활이 증가하는 추세는 대장장이 유동렬씨에게는 핸드메이드 홈 인테리어 디자인의 새로운 시장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부터 전해져오는 기술을 가진 대장장이 장인에게 문고리, 손잡이, 다른 장식들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생기기 때문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도시 엘리트들은 단지를 벗어나 대도시와 가까운 위성도시 지역의 개별 주택으로 이사하기 시작했고 (Gélezeau 2003) 한옥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열었다.

금속 주물

대장장이 유동렬씨가 제작한 유명한 도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산업 생산된 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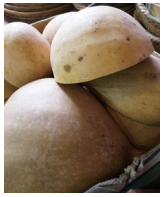
한국의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 공예품은 그 가용성이 제한되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더욱 상징적이다. 그것들은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며 세계화 장르로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여졌다. 이곳에서 공예와 그와 관련된 전통은 복제품으로 변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섞이고 변화하는 문화를 파악한다. “소멸된 전통은 상상적 불완전한 과거로 재구성된다.” (Lie 2015)

“이웃과 민족의 개념을 만드는 것은 집단적 형태의 상상력이다. (생략) 오늘날의 상상력은 오직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기 위한 활동 무대이다. (생략) 전세계적 대중 매체의 소비가 종종 저항, 아이러니, 선택성 및 대리성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Appadurai 1997)

다른 많은 요인들과 함께 집단적 상상력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되는 “견실성”에 가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전통은 여전히 명절, 결혼식 및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가정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다.

“한복은 특정한 경우에만 입기 때문에 요새는 구매보다 임대가 많다.” 육거리 시장의 한 조용한 골목에서 젊은 한복 제작자는 재봉틀 옆에 앉아 일한다. 저렴한 기성복 한복 뿐만 아니라 주문을 받기도 한다. 고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용성과 가격대이다. 손으로 직접 만든 고품질의 전통

한옥집 창문 세부 모습


박, 전통 바가지

육거리 시장에서 팔고 있는 유래를 알수 없는 시골풍 제품

의상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고가이다. 매력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스타일과 색상 또한 필요하다. 더 반짝이는 재질, 세탁하기 쉬운 합성 직물, 질감과 반짝임이 추가되었다. 개량 한복은 포스트 모던적 상품이 되었으며 유행과 때로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한국적”인 표현을 결합시킨다. 동시에 현재의 유행에 따라 맞춤화되면서도 한국 가정 생활에 내재된 관습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존재한다.

전통적 형태에 충실한 고급 한복부터 그렇지 않은 간단한 한복에 이르기까지 이는 단일 전통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그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현실을 보여준다. 품질의 차이는 소비자 문화를 정의하는 사회적 계층 구조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며, 소비자 계급은 소비하는 제품 유형에 의해 나뉜다. (Bourdieu 197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장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는 제품의 품질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에게 동일할 수도 있다. 물건의 질과 문화적 깊이 사이의 연관성, 살아있는 전통 및 사회적 정체성과 공예 품질의 관련성과 같이 이것은 아직 더 연구되야 하는 문제이다.

- “지방 자치 시스템이 1990년대에 나타난 이후, 각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독창성을 개발하는 전략을 짜왔다. (생략) 지방 정부는 지역색을 강조하고, 관광을 장려하고, 민속을 재개발하여 지역이 가진 기록을 알리고, 지역의 잡지를 출판하기 위해 지역 축제를 개최한다.” (Kim 2003)

속리산 국립공원의 기념품 가게. 유래를 알수 없는 여러 공예품이 놓여져있다

한지와 삼으로 만든 전통적으로 엮인 책

육거리 시장의 가게에서 한복을 보여주며 인터뷰하는 한복 제작자

한국의 빠른 근대화 과정과 도시로의 대량 이주가 일어나는 동안, 1960년대 학생들과 학자들은 현대화에 대응하여 민속 문화를 알리려는 평행적 운동을 시작했다 (Lim 2003). 그 이후로 지방 정부는 농촌 생활과 민속 전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청주시에서 가까운 거리에도 관광 경험으로 농촌 생활을 되살리기 위한 많은 사업이 있다. 벌랏 한지 마을, 현토 오박사 마을, 낭성 고드미 마을은 방문객들에게 농업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한지 마을의 경우 20채의 농가가 남아 있으며 종이 제작과 같은 간단한 활동이 가능하다. 한지는 목판 인쇄, 금속 인쇄 또는 낙화술을 생산하는 장인들이 사용하며, 물건 및 섬유(지승)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전통 종이를 사용하지만, 현재 충북 지역에는 한지 문화 관광 경험과 전문적인 창의적 작업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은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자를 육성하고 자극할 수 있는 광범위한 창의적 전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창작 레지던시나 사업 기회를 통해 활동을 다양화하고 지역 주민과 외부인 간의 협력을 늘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rs.

현재 많은 공예 활동은 상호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활성화되는 대신, 아마추어들에 의한 미리 계획된 활동들로 제한되어있다. 이 모델은 독창적인 콘텐츠의 핵심 요소인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길 여지를 주지 않으며,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존 문맥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예 지식과 양질의 창의적인 컨텐츠를 보다 강력하게 통합할 수 있는 지역 비즈니스와 관광 산업에 유리할 것이다.

지역 농장에서 나온 말린 대추

마을에서 팔리는 공예품

전통적, 그리고 현대적 삶

육거리 시장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현대식 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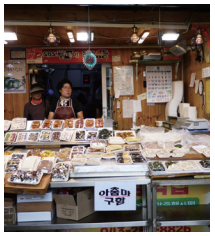
소반은 주로 식사, 그리고 읽기와 쓰기 (책상반) 에 쓰이는 작은 휴대용 상이며 여러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의 전통에선 식탁을 공유 할 수 없었으며, '한 사람당 한 상' (일인일반) 이 표준이었다. 일반 가정에는 손님을 위해 여러 개의 상이 있었으며, 각 상은 접시가 완벽하게 맞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크기도 집주인이 손님을 쉽게 접대할 수 있고, 식사 할 때 손님이 편하도록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었다 (Choi 2018).

오늘날 정통 소반은 고가 골동품이다. 1960년대 이래 도시 인구의 대다수가 현대식 식탁과 의자로 이동했지만, 소반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고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 육거리 시장에서 팔린다. 그 중 하나가 쉬이 보관할 수 있는 접이식 알루미늄 다리를 만든 디자인이다. 물론 이것의 역사는 가치있는 수공예 오브제와는 비교할 수 조차 없지만, 한국 문화 자체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 관습의 연장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형태와 기능성에서 물건의 변화는 종종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어색한 관계를 포착하며 기능성이 본래의 공예의 미학적 가치를 재정의한다.

교류

사람과 사람의 연결

육거리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 상인과 상점 주인



보은군 지역 시장에서 함께 모여 일하고 있는 여성들

Women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돕는다. 우리 중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 고객을 맞이한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다."

육거리 시장 식품 공급 업체들은 친근하게 서로에게, 그리고 충실한 고객에게 의존한다. 서로 격의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찾아주는 단골 고객이 있다. 여성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했다. 시장 근처 작은 집에 사는 그녀들을 보니, 동남아시아의 시골마을에 있는 방직공들이 생각났다.
나란히 앉아, 끝없이 이야기하고 친근하게 함께 일하는 한국의 시골 시장의 여성들에 대한 기사 중, 인근 산과 들판에서 채취한 것들을 판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본능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방법을 찾아내는 그들을 '베가본드 (부랑자)'라 일컫기도 한다고 말이다. 시장에서 앉아서 일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결말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것과 같았다. 한국인들에게도 그들의 존재는 어딘가 향수이다.

옛 한국 가정에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손재주와 오랜 지식들로 자수부터 음식준비에 이르는 모든 일을 했으며, 장인정신에 헌신과 인내심은 필수적이었다. 일은 결코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자수를 완성하기 위해 수천 번의 바느질이 필요하며 금욕주의적 인내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실 자수의 정신이었다. 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 쏟아온 오랜 시간의 자기 희생적 노력은 사실 자수의 정신으로, 이를 통해 편안하고 매력적인 가정환경을 만들었던 것이다."
(2011 한국 자수 박물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주로 가정 밖에서의 장인 정신은 다른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사물의 존재는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고 일상 생활 속 한국의 문화적 풍경이 바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배움

"우리에게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계획들과 이뤄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다. 우리는 유산을 여러 형태로 되살림으로서 미래를 재건할 수 있다." (Ricœur 2008)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예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장인과 도제 사이, 가족 구성원끼리, 장인과 디자이너 사이 등. 매우 전통적인 것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것,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것까지, 공예 지식은 그것이 전수되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청주를 비롯한 인근 도시들은 역사적, 전통적 맥락에 따른 수 많은 공예 교육 활동들을 제공한다. 공예 문화 체험은 주로 일반 대중들에게 예전의 방식들을 소개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직지 박물관과 금속 활자 전수교육관에서는 금속 활자 장인 임인호씨가 주말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속 활자를 시연하고 가르친다. 정부가 후원하는 무료 강좌로 일반 대중들을 유치하지만,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이나 공예전문가들에게는 그만큼 홍보되지 않아 그들의 참석은 미미하다.

청주는 선종(禪宗)의 선집(選集)인 직지 (불조직지심체요절)가 태어난 곳이며, 이는 최초의 이동가능한 금속 인쇄 책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종류의 인쇄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전통적인 책은 지속적으로 인쇄되어야 하며 금속 활자 인쇄의 틈새 인기는 소규모 출판을 통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전통의 핵심적 요소와 현대 디자인 사이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날로그 미디어를 흥미롭게 생각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디지털 시대에 고려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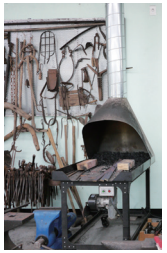
•

보은전통문화보존회는 5명의 지역 장인이 함께 설립하여 일반 대중과 이하의 분야에서 가업을 잇고자 하는 젊은 도제들에게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야는 사원을 위한 목각, 낙화, 금속 가공, 양조 및 목판 인쇄로 이루어져있다. 각각 장인이 가르치며 도제의 평균 연령은 30살에서 40살이다. 또한, 이 센터는 무형 문화 유산 분야의 유네스코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무형 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한다.

우리는 4대째 가업을 이어 지난 47년 동안 작업을 지속해온 낙화 공예가 김영조씨와 목각 공예가 하명석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센터는 현대 미술 분야가 실제로 도달 할 수 없는 기술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기술의 생존은 특정 유형의 시장 수요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불교 조각의 경우, 불상의 수요는 매우 높으며 국제적으로 확장되어있다. 생산의 80%는 절의 주문, 나머지 20%는 개인에게 팔린다. 한계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원풍리 한지 박물관이 제공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수업



보은군 대장장이 체험 센터의 벽에 걸려있는 도구들

김영조씨의 낙화술 시연.

하명석씨가 조각한 불상

•

유동렬씨는 어렸을 때 삼촌이 대장장이로 일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몇 년 회사에서 일한 후, 대장장이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85세이지만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중인 설용술 장인 밑에서 사사했다. 유동렬씨는 보은에서 자신의 작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 초, 농업, 농사 및 민속 문화를 장려하는 박물관 산하의 대장장이 체험 센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시연하기도 하고, 공예에 관심을 가지는 중학교 견습생을 가르친다. 또한 인근 보은전통문화보존회 의 '보은 전통공예 체험학교'에서도 활동을 하고있다.

젊은 세대의 대장장이인 유동렬씨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자신의 기술에 열정적이다. 그의 낙관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는 작업자 부족과 도시 지역의 새로운 수요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믿는다. 지난 3년 동안 이 지역 대장장이의 약 절반이 사업 운영을 중단했다. 수요가 감소한 반면, 동시에 고급 공예 디자인 및 건축에 관한 대체 시장이 열렸다. 유동렬씨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창조적 혁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

판매용 물건을 생산하며 학습 센터이기도 한 대장장이 체험 센터

(비)가시성

"충북에는 장인이 많지만 멀리 흩어져 있어 찾기가 쉽지 않다."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의 사람들에 따르면 충북의 수공예 제작자들은 멀리 퍼져 있으며 대개 도시 지역 밖에 있다고 한다. 그들을 찾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 20년전, 여러 종류의 수제 제품을 생산하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오늘날 이런 만남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날 일상생활 속의 맥락에서 공예는 비가시성이다.

청주의 작은 도자기 공방인 토모 공방의 정철호씨와 노정석씨는 충북 지역에 사는 다른 제작자들과 협력하여 만든 전문가 네트워크의 회원이다. 그들은 노출과 시장 기회를 포함한 공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청주 국제 공항 등 관광 지역에서의 입지를 넓히면서 비즈니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 또는 판매 기회를 기획한다. 이들은 이 지역에 많은 장인들이 대부분 만나기가 어렵고 각자 다른 그룹으로 따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예 지식에 대한 접근은 지역 사회 자체 내에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청주의 현대적 도자기 공방인 토모 공방을 찾아서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청주의 공예 생태는 멀리 퍼져 있다

수요와 공급

"모든 풍경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유령처럼 떠안고 있다 (생략) 멸종은 지역 안의 일이자 세계적인 일이다. 멸종은 의도하지 않은 반향 효과가 있는 조화의 결렬이다." (Tsing et al. 2017)

충북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숲에서 나온 목재는 도자를 굽거나 불상 조각과 같은 목각 예술의 원료로 사용된다. 산수와 토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자 생산에 이상적인 환경이다. 오늘날 제조자들은 대부분 현지의 천연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현지 자원과 공급 사슬의 길이를 줄이는 삶의 방식을 원칙으로 가지는 공예와 모순된다. 장인적 식량 생산 (예 : 농장직거래 운동) 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의 공예에도 이와 유사한 관계가 확대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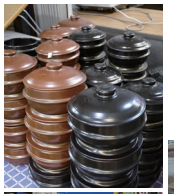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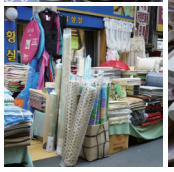
지역 문화 지식의 고갈과 환경 파괴는 더 큰 시스템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관 관계가 있다. 가장 작은 변화조차도 인간 관계와 그에 의존하는 문화적 맥락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화는 현 환경 위기의 근본 원인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의 모델로서 공예가 가진 기회를 나타낸다.

청주의 공예품 재료 공급은 현재 한국 내 특정 도시에 집중되어있다. 이천과 여주는 도예 생산자에게 흙을 공급하는 반면, 대구는 섬유 생산의 중심지이다. 이차 도시는 종종 다른 도시의 소재 허브 역할을 하며, 우세한 중심으로서의 서울에 전국의 자재와 완제품이 모인다.

공예품 공급은 한국 국경 내에서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 제품의 유통은 훨씬 더 세계화 되어 있다. 육거리 시장의 상점 주인은 "수제 제품이 너무 비싸서 요즘 많이 생산하지는 않는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한다.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그런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선반에서 청주의 한 공장에서 만든 도자기 머그잔을 집으며 원래는 가격이 더 비쌌었다고 강조했다.

공예품 제작자와 판매자 간의 단절된 관계는 공장에서 만든 품목으로 넘쳐나는 현지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흥미롭게도 일부 물건의 기능과 형태가 남아 있다. 냄비, 그릇, 매트, 나무 식기, 심지어 "대나무 부인" 으로 알려진 죽부인은 육거리 시장과 다른 작은 마을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현대 생활에서 사람들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산업 효율성, 경제성 및 처분성에 의해 변화했다. 결과적으로, 일상 생활의 미학적 차원이 줄어들었다.

일상 생활의 전통적 형태나 기능의 유사성을 유지하는 다양한 산업 제품

조령 마을의 도자기 가마

목각에 사용되는 대추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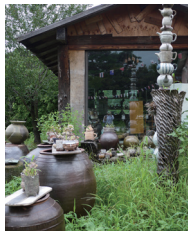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키

경계를 넘어

"도자 제조자들은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도와야해야 한다. 지역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관광지로 가야 작품을 팔 수 있다. 또한 다른 아시아 작업자들과 교류를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국제적 공동체를 통해 전문성과 지식을 결합한 가마를 만들었다. 다른 많은 국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 가마는 아니다."

괴산군 원풍리의 큰 길을 따라가다보면 좌측에 조령민속공예촌이 있다. 가파른 길에서 가까운 거리이며 마을이라기 보단 몇 개의 집이 모여 있다. 강경훈씨는 이 곳에 공방과 가게를 설립했다. 과거에는 많은 나무 조각가들이 이 마을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강경훈씨가 유일한 장인이 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도자기를 가르치다가 아내와 함께 괴산으로 이주하여 도자 생산에 이상적인 산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욱 저렴한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실험과 국제적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현 세대의 장인이다.

매년 강경훈씨는 국제 도예전을 개최하여 문화 교류를 장려하고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의 전시를 기획한다.



괴산군 조령 마을의 강경훈씨의 도자기 공방, 가게를 방문

자택의 한명철씨

•

괴산군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씨는 가족들이 5세대 동안 살아온 고향 집에서 생활한다. 그는 은행원이었고 한국과 전 세계를 여행했다. 여행 중에 그는 씨앗, 가지 및 기타 여러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천연 재료를 수집했다. 그는 동물과 다른 생물을 묘사하는 오브제를 계속 만들어 왔고, 특히 한국 민속 문화의 신화적인 호랑이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해도 호랑이는 항상 잘 만들어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한씨의 독학 기술은 목각을 기본으로 하지만 뭐라 분류 할 수 없는 비전통적인 조립으로 구성된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작품을 팔기를 거부한다. 수백 개의 작은 조각품을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고 몇 개는 집에 장식해 두었다. 각 작품은 한국 민속 문학이나 외국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배경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다작가이며, 디테일하고, 직관적인, 정직하고, 반응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감동적인 제작자이다. "호기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 웃었다. 그의 열정적인 태도와 재능은 그를 진정한 장인으로 만든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정원에 서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를 이렇게 방문해준 외국인은 당신이 처음이다. 이 작은 마을에 연구를 와준 것은 매우 용감한 일이다!" 라고.

회복

사람, 공예, 그리고 청주

"한국 문화를 인간 중심의 역학으로 되돌리려면 한국인이 어떻게 문화적 요소를 만들고, 생산하고, 채택하고, 개혁하고, 재생산하고, 버려 왔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문화는 별개의 존재가 아닌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Yi 2003)

"현시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태도, 관습 및 생활 양식을 바꿔야한다. 시민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려면 자유와 그렇게 할 의지를 주는 것 만큼 생각할 수있는 수단을 주어야 한다. 의지의 힘과 결정의 확실성이 없다면 지식은 고통스럽거나 그저 황홀함이다."
(Bindé 1997)

탈 공업화적 미래

시장의 어떤 판매자는 바닥의 먼지 투성이 플라스틱 상자를 가리켰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수제 제품이다."

도자기 조각은 몇 달이고 거기에 있었던 듯 보였고, 몇 년 동안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질은 좋지 않았지만 소박함이 흥미로웠다. 흰 플라스틱 그릇 더미 사이의 그것들은 마치 고고학적 발견처럼 느껴졌다.

이름도 모르는 물건, 신비로운, 그러나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조용히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을 집어 3000원에 구매했다.

보은의 공장품 더미를 파는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수공예품

상점에서 구입한 소박한 수제 도자 오브제

어떤 요청

"예술적 공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 사회와 연관성이 없다. 두 그룹은 서로 충분히 의사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 부서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요청이 있다. 연구에서 이 점을 강조해 줄 수 있는가?"

도자 공방에서 만난 김만수씨와 기록한 그의 요청

•

청주가 창의적인 공예 실험을 위한 도시 연구소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역 자산과 창의력이 지속되는 농촌 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소규모 도시 구조 (예 : 시장, 거리 상점) 와 함께 살아남는 것이다. 다음 1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을 내구성이 높고 문화적으로 의미있게 만들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 의해 재생성되어 한다.

회복은 사회 및 문화적 과제가 나타나는 상황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연결점을 식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공예와 지역 간의 단절, 산업적 공정의 침투, 일상 생활 밖에서 미학의 이탈, 지역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의 서사 등 더 넓은 현실을 반영하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화 및 예술 프로젝트는 인간 중심적으로 서로 다른 그룹을 연결하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야한다.

창조적 문화의 지속 가능성은 먼저 지역 사람들과의 연결에 달려 있다. 청주와 그 주변에는 공예와 지역 문화재가 존재하지만 공예와 지역 주민 사이의 단절이 깊다.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일상 생활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예는 삶의 질 개념과 모든 사람에게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예는 이 사회적 현실과 분리 될 수 없다.

단순한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끊어진 연결점을 복원하는 해결책을 나타낸다.

아름다움에 대한 권리

"20년 전까지 만해도 이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구니를 짜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공예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영조)

[일상의 삶 속에서]

"문맥은 실제적이고 가능한 관계를 생성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이지만 문맥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생략)

우리는 계획, 지속 가능성 및 디자인이 어떻게 시장 실패에 대한 시정으로서, 그리고 가격과 소비자 요구에 의해 측정된 효율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회 정책의 원천으로 가장 잘 작동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아이디어 사이의,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와 동기의 연결을 강화시킬 수 있다."
(Appadurai 2013)

음식 문화, 환경 지속 가능성, 마을 공동체, 시장을 포함한 지역의 삶과 같은 다른 분야에 도달하기 위해 예술과 디자인을 넘어 공예 지식을 적용하는 것은 현 시대에 점점 더 의미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 공예는 주로 전통 문화 보존, 예술 및 디자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표현과 상징과 같은 사물과 "상상의 세계"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예는 실제 삶의 문맥이 아닌 특정 경계 내에서 살아 남고 있으며 따라서 예측적 패턴을 따른다. 일상적 상황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공예는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생태를 생성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장인과 가게 주인을 연결하고, 지역 생활과 관광의 균형을 유지하는 도덕적인 방법과 연계한 생산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문화 유산으로서의 공예의 가치는 상당하지만, 이 유산의 역동적인 삶을 박물관이나 기관, 예술 행사에 가두지 않고 현시대의 맥락에 참여시키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예는 과거의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나 예술의 현대적 형태가 아닌, 지역과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해결책과 수단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공예의 데이터와 연구]

“지역화된 자원과 지식이 풍부한 경우, 지역 사회와 최대한 밀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Weber 2005)

장소의 창조적 변화는 정보에 입각한 조사와 다양한 관점의 심층 분석에 달려 있다. 전통 공예 문화의 경우, 이 심층 연구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미래의 신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 시장의 실패를 다루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 소규모 산업을 위한 사회 혁신 모델, 농촌 환경 및 천연 자원, 전문 네트워크, 도시-농촌의 협력 등 다양한 문맥과 관련하여 공예를 연구해야 한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야기와 사례 연구를 기록하여 여러 점들을 연결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실제적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공예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사회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해외에서는 특히 제한적이다. 특히 일상 문화와 소규모 기업에 중점을 둔 내용의 관점에서 보는 지역의 경험과 비공식 지식 자산에 대한 독립적 연구가 부족하다. 이것은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및 창조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적하는 바이다.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여는 것은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통해 공예 지식을 적용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현 시대의 실제적인 역할이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실천으로 소외될 경우 공예의 관련성은 계속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변화와의 관계 안에서 공예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관, 학계, 연구자, 소규모 기업가 및 창의적 작업자와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열린 도시]

열린 도시는 사람들의 것이며, 사람 간의 상호 작용과 서로 다름을 통해 지속된다. ‘열린 도시’ 의 원칙은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와 만남을 기반으로 한다 (Sennett 2019). 이 맥락에서 공예는 세부적인 것에서 유기적으로 진화하고 일상 생활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재도입 될 수 있다.

동질성과 규칙적인 패턴을 지양하는 열린 도시는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형성하는 플랫폼이다. 자신을 비공식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알고 있던 지난 세대의 방식으로, 개방형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지역의 여러 사람들 간의 교류는 컨텐츠, 자원 및 접근 방식을 다양화한다. 이러한 유연한 구조를 가지는 열린 도시는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접근법과 관련하여 지식의 역동적인 전수에 필요한 상호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청주의 경우 도시 플랫폼은 외곽 지역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다. 분산과 거리감은 “사이” 에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 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구현한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는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점점 더 과제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 문제에 중점을 둔 이러한 영역 중 일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 및 예술 기획 (예 : 에치고 츠마리 아트필드) 이 시행되었다. 창의적인 수단과 지역성을 자산으로 이용한 이러한 유형의 기획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끊어진 관계를 재정렬했다. 공예를 포함한 창조적 문화는 예측 가능하고 균질하게 된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영토를 모험하는 보상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매 모호함은 장점이 되었으며, 만남은 창의성이 발전하고 인간 관계가 향상되는 연료 역할을 했다.

역동적인 문화 생활을 향한 길은 생산자, 판매자 및 고객이 밀접한 유대를 만드는 현지화된 생산 및 소비에 달려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는 사람들이 서로 다시 연결할 수있는 동시에 공급과 수요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공예에게 필요한 것은 공예품의 고품질 유통 감소와 높은 사회 문화적 관심이며, 이는 지역 자원의 증가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청주는 자발적인 행동과 내구성 있는 계획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공동 노력과 열린 도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네트워크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하여, 공예와 지역 문화가 균형 잡힌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역의 허브가 될 수 있다.

장소

보은 대장간
보은 농업기술센터
보은전통문화보존회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
보은군
보은 시장
괴산군
청주시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옛 연초제조창)
조령민속공예촌
증평
증평시장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 한국공예관
청주 지역 시장
속리산국립공원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청주 토모공방
괴산군 원풍리
청주 육거리 시장
•
서울 씨알콜렉티브
서울 광장 시장
서울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서울 남대문 시장
서울 국립 민속 박물관

사람

익명의 한복 제작자
익명의 떡 제작자 및 판매자
익명의 쌀과자 제작자 및 판매자
익명의 철물점 주인
익명의 생활용품 가게 판매자
익명의 소반 판매자
익명의 채소 판매자
익명의 식당 주인
익명의 한지 상점 판매자
익명의 한지 박물관 직원
익명의 공예 박물관 직원
대장장이 최용진
목각사 하명석
제작자 한명철
도예가 정철호
KCDF 진정현
도예가 강경훈
도예가 김만수
낙화술 전문가 김영조
도예 제품 디자이너 노정숙
KCDF 오가영
씨알콜렉티브 오세원
대장장이 유동렬

물건
(여러 물건 중 몇 개를 선택)

Bibliography

Abelmann N. (2003) The Melodrama of Mobility: Women, Talk, and Clas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Appadurai A. (1997)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_____ (2013) The Future as Cultural Fact: Essays on the Global Condition, London & New York: Verso.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2013) Po, the Seonbi Spirit in Clothing, Seoul.

_____ (2010) Beauty in Everyday Living, Unique Korean Uniforms for Traditional Cultural Spaces, Seoul.

Bidet E. (2005) Communautés Villageoises, Réseaux Urbains, Sociologie Coréenne, Paris: Les Indes Savantes.

Bindé J. (1997) Toward an Ethics of the Future in 'Globalization' ed. Appadurai 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Bojagi: The Art of Harmony, The Collection of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2011), Special Exhibition at the Shinsegae Gallery.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une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Brandt V.S.R. (1971) A Korean Village, Between Farm and S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rown S. Clarke, A. Frederick U. ed. (2015) Object Stories: Artifacts and Archeologists,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Choi C-J. (2003) Study of How Koreans View and Utilize Nature in 'Korean Anthropology: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n Flux',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New Jersey, Seoul: Hollym

Choi I. and Park J. (2001) The Century of Korean Photography, Images from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Seoul: The Research Institute: The History of Photography.

Clark D.N. (2000) Culture and Customs of Korea, Westport CT: Greenwood Press

_____ (2009) Missionary Photography in Korea: Encountering the West Through Christianity, New York: The Korea Society.

Clifford J.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raft Narrative: the place, process, perspective (2016) Seou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Craft Trend Fair Seoul 2012: Rediscovery! Craft and Locality, Seoul: KCDF.

Craft Trend Fair Seoul 2016: Heritage to Originality, new possibilities and potential for the future, Seoul: KCDF.

Folk Culture in Korea, The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ed. (1974) Seoul: Si-sa-yong-o-sa Publishers Inc.

Gélezeau V. (2003) Séoul, ville géante, cité radieuse, Paris: CNRS Editions.

Hamel H. (1704) 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on the Coast of the Isle of Quelpaert together with 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published in Korea Vol. 1 Itineraria Asiatica, Max F. ed. (1981) Bangkok: White Orchid Press.

Kendall L. (1996) Getting Married in Korea, Of Gender, Morality and Modernity,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im K-O. (2004) The Making and Indigenization of Anthropology in Korea, in The Making of Anthropology in East and Southeast Asia, New York: Berghahn Books, pp253-287.

Kim Y-G. and Shin H-S. (2011) Hanbok, la beauté raffinée de l'habit traditionnel coréen, Seoul: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itagawa F. (2015) Art Place Japan: The Echigo-Tsumari Art Triennale and the Vision to Reconnect Art and Natur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Knez, E. I. (1997) The Modernization of Three Korean Villages, 1951-1981: An Illustrated Study of a People and Their Material Culture,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ed. (2017) Cheongja: Korean Traditional Celadon, Seoul: KDCF

_____ (2015) Chimseon: Korean Traditional Sewing, Seoul: KCDF

_____ (2016) Ipsa: Korean Traditional Silver or Gold Inlaying, Seoul: KCDF

_____ (2018) Jewa: Korean Traditional Handmade Roof Tile, Seoul: KCDF

_____ (2015) Onggi: Korean Traditional Earthenware, Seoul: KCDF

_____ (2017) Ottchil: Korean Traditional Lacquer, Seoul: KCDF

_____ (2016) Maedup: Korean Traditional

Decorative Knotting, Seoul: KCDF

_____

(2014) Nubi: Korean Traditional Quilt, Seoul: KCDF

_____

(2018) Soban: Korean Traditional Portable Dining Table, Seoul: KCDF

Korea - Korea, Ein Photoprojekt von Dieter Leistner, Museum Angewandte Kunst ed. (2013) Berlin: Gestalten.

Korea Now! exhibition catalogue (2015),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Korea Power: Design and Identity, Museum für Angewandte Kunst (2013) Berlin: Gestalten.

Koreana: Art et Culture de Corée ed. (2018) Le Libre Langage de la Photographie Coréenne, Seoul: Korea Foundation.

Koreana Vol.16/No.2 (2015) Les marchés traditionnels: origines et évolution, Seoul: Korea Foundation.

Koreana Vol.18/No.3 (2017) Cuisines coréennes: du fourneau à la réalité virtuelle, Seoul: Korea Foundation.

Ku I-M. (2007) "Culture" as an Imported Concept and "Korea" as a Nation-State, Seoul: Korea Journal, Spring 2007.

Lee O. Y. (1994) Korea in its Creations, Seoul: Design House Publishers.

Lee U. (1997) Un Art de la Rencontre, Arles: Actes Sud.

Lee Youngsoon's Jiseung Works (2014), SeMA Nam Seoul Living Arts Museum.

Morillot J. (1998) La Corée, chamanes, montagnes et gratte-ciel, Paris: Les Editions Autrement.

Nahm A-C. (1988) Kore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New Jersey: Hollym.

Leppanen A. (2007) Neighborhood Shopkeep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Household, Work, and Locality, Helsinki: University of Helsinki.

Lie J. (2015) K-Pop, Popular Music, Cultural Amnesia and Economic Innovation in South Korea,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ne Summer Day's Repose: Taste, Palate and Healing, exhibition at the National Folk Museum (2016) Seoul: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Osgood C. (1951)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Paik L-G. (1927)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Pettid, M. (2008) Korean Cuisine: An Illustrated History, London: Reaktion Books.

Pink S. ed. (2007) Visual Interventions: Applied Visual Anthropology, New York: Berghahn Books.

Ricœur P. (2008) Amour et Justice, Paris: Seuil.

Ruby J. Banks, M. ed. (2011) Made to Be Seen,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Visu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chiyama K. (2013) Patriarchy in East Asia, A Comparative Sociology of Gender, Leiden, Boston: Brill.

Sennett R. (2008) The Craftsm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_____ (2019) The Open City in 'Borders', Lotus Magazine No 168, pp124-129, Milan: Lotus Editoriale.

Starkman C. & Zelevansky L. (2009) Your Bright Future: 12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Sinsheimer K. Tucker A. Koo B. (2009) Chaotic Harmony, Contemporary Korean Photography, Museum of Fine Arts Houston and Santa Barbara Museum of Ar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Tsing A. et al. (2017) Arts of Living on a Damaged Planet: Ghosts and Monsters of the Anthropocen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Vitality: Korea Young Design, curated by Choi Kyung Ran (2011-12) Triennale Design Museum Milano.

Wanne J. (1977) Traditional Korea, A Cultural History, Seoul: Chung'Ang University Press.

Weber J. (2005) Access to the Benefit of Sharing in 'Biodiversity and Local Ecological Knowledge in France', ed. Bérard L. et al., Paris: INRA.

Woman's Dream in Gyubang (2010) The Collection of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Special Exhibition at Shinsegae Gallery.

Yanagi S. and Leach B. (1972) The Unknown Craftsman: A Japanese Insight into Beaut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Yi J-D. (2003) What is Korean Culture Anyway? Korea Journal Vol 43. No.1 Spring,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Zetterlung C. (2019) The Shape of craft – review in the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32 Number 1, Oxford University Press.

정책

예술과 공예를 통한 도시의 변화

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법
이동성을 중심으로

강유진